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 WORK



- 1)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 주일설교

**제목: 유익을 이루고, 덕(德)을 세우라!**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로마서 1:7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로마서 1:16-17절).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로마서 15:1-2절)라고 명령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신자(성도)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로마서 15:1-2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며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2. 덕을 세우는 삶이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상대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이라”(고린도전서 9:20-23; 10:32-33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교회공동체에서 거치는(걸림돌, 방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거치는(걸림돌, 방해)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로마서 15:5-6절; 고린도전서 10:31-33절).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교회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공동체에서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 여러분! 이웃에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나요?
-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세상에 없던 교회”

“술을 먹고 교회와도 되나요?”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며 강단에서 찬양을 합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찬양팀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강단으로 찾아와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기도부탁도 하곤 합니다.

어제는 술 취한 한 청년이 강단 앞에 서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회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청년을 말리려 하구요. 무슨 돌발적인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런데 술 냄새를 확 풍기며 다가온 그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몇 주를 같이 오던 어머니는 못 오고 자기 혼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디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난 후 청년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바쁘게 뛰어 다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술 냄새가 나더군요. 한쪽 구석에 비껴서 있던 청년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 먹고 교회와도 되나요?”

“그래, 괜찮아...”

그렇게 청년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은 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 버렸구나!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는 것과 술을 먹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참 많이 질책하셨던 위선적이고 바리새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교회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꿈꿔야 하는 세상에 없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꿈꾸며, 세상에 없던 교회, 세상에 없던 그리스도인, 세상에 없었던 일을 생각 합니다.

THINK

-김병삼 목사 페이지에서...

단순히 술과 담배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숙함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달픈 이들이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생각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마을특송	샘솟는	섬김	샬롬	온유	청장년
대표기도	장정숙 권사	안병자 권사	김은경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김	샬롬+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 주요광고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중식을 김밥으로 대신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부서 여름행사가 모두 은혜롭게 성료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다음세대 되도록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옥합 헌신예배 / 8월 21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3층 본당 / 강사: 임시영 목사(신수동교회)
  - 정기당회 / 8월 21일(주일) 오후 예배 후 / 장소: 4층 VIP실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 필참).
  - 목요향기로운예배 / 일시: 8월 25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새가족부 / 다음 주: 청년옥합)
  - 교우 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유준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최진수 장로/이은경 집사/장순희 집사/서승석 성도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입니다!